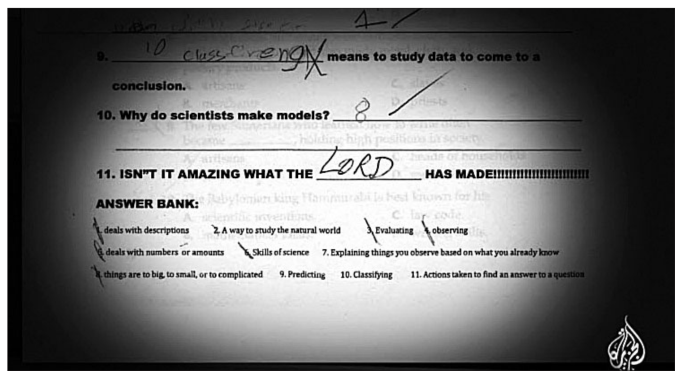
빈 칸에 ‘주님’ 쓰고 특별점수 받으세요

美 불자가정, 종교편향 교육
공립학교에 소송제기



니그리트 고등학교 입구에 ‘예수를 향해 일어서자(Let's stand up for Jesus)라는 팻말이 걸려있다(사진 왼쪽). 주님(Lord)를 쓰면 특별점수를 준다는 과학시험 문제(사진 오른쪽).

미국의 한 불자 가정이 학교의 불법적인 복음주의 교육에 맞서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Aljazeera America〉 지는 10월 21일(현지시간) “루이지애나 사빈 패리시(Sabine Parish) 카운티에 살고 있는 샤론 레인(Sharon Lane)씨가 니그리트(Negreet)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내 종교 자유’를 보장받기 위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독실한 불교도인 샤론 레인 씨는 두 자녀의 엄마로, 올해 초 유타에서 루이지애나로 이사했고, 두 자녀 스콧(Scott)과 안나(Anna)는 사빈 패리시 카운티의 니그리트 고등학교로 전학했다. 그런데 두 자녀 특히 스콧에게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겼다. 니그리트 고등학교가 학과 수업 외에도 ‘복음주의’에도 적잖게 관심을 쏟기 때문이다.

〈Aljazeera America〉지는 “공립학교인 니그리트 고등학교에서 기독교 복음주의 관련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었다”는 샤론 레인 씨의 말을 인용, “미국, 특히 남부 시골에서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 전통을 따르는 학부모들과 그 자녀들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장려하는 복음주의 활동에 힘들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일 아이들의 볼멘소리를 들으며 등교시킬 때마다, 나는 마치 ‘킥-커’가 된 느낌이었다”는 샤론 레인 씨는 “평탄하지 않은 학내 활동에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매일 차로 바래다 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루이지애나 니그리트 공립고교
창조론 교육 · 복음주의 강요
美 종교편향 실태조사 단체 ACLU
“종교강요 반발 학생 찾는 사례 늘어”

며 “그래도 학교라는 테두리가 있으니, 자녀들이 스스로 깨치고 성장할 것이라 믿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니그리트 고등학교에서 실시한 ‘평가 시험’을 지켜보면서, 그 믿음조차 버릴 수밖에 없었다. 〈Aljazeera America〉 지에 따르면 니그리트 고등학교의 과학 시험 문제 중의 하나를 알게 된 순간 샤론 레인 씨는 자신의 믿음마저 저버리게 됐다.

Isn’t it amazing what the ____ has made!!!” Fill in the word “Lord” and get extra credit.

“____가(은/는) 창조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빈 칸에 ‘주’를 쓰고, 특별 점수를 받으시오,

“스콧의 누나 안나에게서 과학 시험에 출제된 이 문제를 들었을 때 몹시 놀랐다”는 샤론 레인 씨는 “더욱이 스콧이 이 문제를 틀렸고, 그로 인해 과학 교사가 스콧에게 ‘바보’라며 꾸지람 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엄마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고, 결국 ‘재판’이라는 극단의 방법을 선택했다”며 “스콧이 그 문제를 틀린 것은 ‘독실한 불자 가정’에서 자랐다는 이유뿐”이라고 말했다.

〈Aljazeera America〉 지에 따르면, 샤론 레인 씨의 변론은 ACLU의 수석 변호사인 헤더 위버(Heather Weaver) 씨가 맡고 있다. ACLU는 미국 전역의 공립학교에서 일어나는 종교편향 교육의 실태를 조사하고 다양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NGO이다,

ACLU에 따르면 미국의 공립학교 중에서 기독교 복음주의를 장려하는 곳이 많다. 루이지애나의 경우 학교 주변은 물론 가로변에서 ‘복음주의 관련 푯말’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샤론 레인 씨의 가족이 살고 있는 사빈 패리시 카운티의 경우 100여 개의 교회가 밀집해 있고, 2만4천여 명의 기독교 신자들이 교회를 매주 교회를 찾고 있다.

“모든 공립학교에서 종교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헤더 위버 수석 변호사는 “그러나 니그리트 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학교에서 복음주의 힙합 그룹인 B-SHOC의 학내 연계 활동이며, 교회 활동을 장려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에 반발한 학생과 학부모들이 ACLU를 찾아오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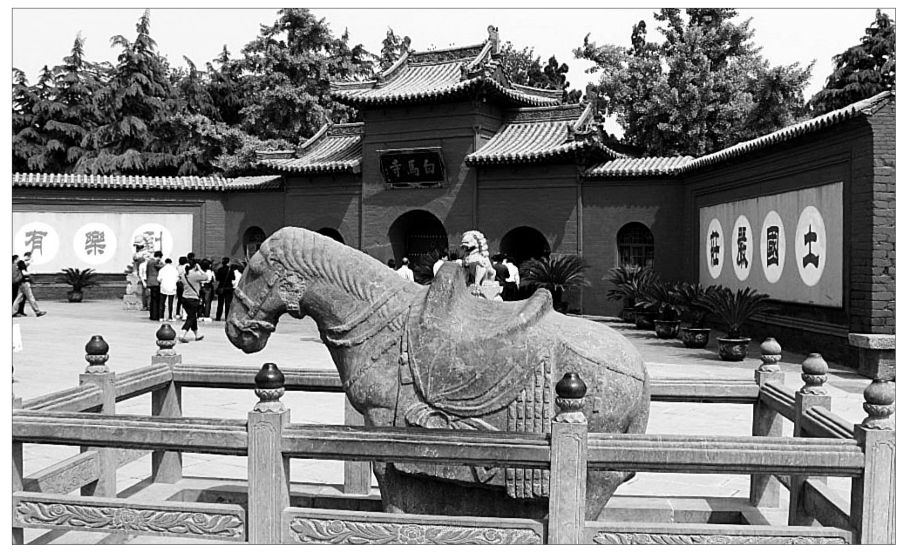
〈Aljazeera America〉지에 따르면, 이번 재판과 관련해 법조계는 샤론 레인 씨의 승소를 예견하고 있다. 그러나 샤론 레인 씨의 가족은 많은 난관을 이겨내야 한다. 스콧은 내키지 않지만 학내 복음주의 동아리의 문을 두드렸고, 그 조차 하지 않던 안나는 여러 친구를 잃었다. 샤론 레인 씨는 지역 주민 중에서 ‘독실한 기독교도’의 눈살에 견뎌야 했다.

“우리 가족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고 말한 샤론 레인 씨는 “유타로 다시 돌아갈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지만, ACLU 등과 같이 우리 가족을 응원해주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곳에서 뿌리를 내리기로 했다”며 “이번 소송으로 ‘자녀들이 불교를 믿어야 합니까?’라고 반문한 니그리트 고등학교 측의 생각을 바꾸어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중국 백마사 10개국 법당 들어선다

2천년역사의 중국 최초 사찰…국제사찰지구 변모



2천년 역사를 자랑하는 중국 백마사(白馬寺)가 국제사찰지구로 변모하고 있다. 사진은 중국 최초의 사찰인 백마사 전경.

2천년 역사를 자랑하는 중국 백마사(白馬寺)가 국제사찰지구로 변모하고 있다.

백마사는 경내에 2010년 5월 인도법당을 개원한데 이어 지난 7월 30일 미얀마 떼인세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미얀마 법당을 열었다.

또한 최근에는 1990년에 세운 태국법당을 증축 · 개원했다.

태국은 3000㎡에 이르는 태국사찰을 개축하기 위해 지난 5년 동안 숙련된 장인 10여명을 파견하고 불상을 받치는 닫집을 장식할 보석들을 본국에서 직접 수송하는 등 사원 개보수 작업을 전적으로 지원해왔다.

향후 백마사에는 스리랑카, 캄보디아, 네팔, 한국 등이 참여해 자국 불교문화와 예술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또한 국제 불교연구소가 백마사 경내에 들어서 동남아를 비롯한 해외지역에서 온 학생과 강연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백양사는 중국 뤄양[洛陽] 서옹문(西雍門) 밖에 있던 중국 최초의 사찰이다. 후한 때인 67년 명제(明帝) 사신의 간청으로 인도의 승려 가섭마등(迦葉摩騰) · 축법란(竺法蘭) 등이 불상 · 경전을 흰 말에 싣고

인도 · 미얀마 · 태국 법당 개원
향후 한국 · 스리랑카 등 10개국 동참
국제 불교연구소도 개원할 예정

뤄양에 들어오자, 명제가 불교를 신봉해 8년 후 백마사를 세웠다.

가섭마등과 축법란은 백마사에 머물며 42장경(《四十二章經》) 1권을 번역했다. 백마사는 후에 점차 퇴락해 당나라때 복수했으나 지금은 전탑(13층) 1기만 남아 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만담으로 지역 주민 ‘苦’ 품다

사회복지시설서 활동 펼치는 日 미우라 스님

노리오 미우라(Norio Miura · 49) 스님이 자신이 운영하는 ‘비하라(Vihara) 21’을 찾은 지역 어르신과 법담을 나누고 있다

재가불자에게 직접 다가서 힐링 법문을 하는 일본의 한 스님이 화제다.

〈Japan Times〉 지는 10월 22일(현지시간) “정토종계 노리오 미우라(Norio Miura · 49) 스님이 만담 형식의 법문으로 재가불자의 삶을 치유하고 있다”며 “스님이 오사카에서 운영하는 비영리 복지단체 ‘비하라(Vihara) 21’에서는 어르신의 웃음소리가 끝나질 않는다”고 보도했다.

미우라 스님이 비하리 21에서 만나는 재가불자들은 주로 ‘일에 파묻힌’ 샐러리맨과 ‘가난하고 외로운’ 어르신들이다.

“샐러리맨에게는 과거의 경험을 건네주고, 어르신에게는 그것을 건네받죠”라고 말하는 미우라 스님은 “출가자의 말은 어렵고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치유할 때, 가장 큰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며 “스님이라기보다는 만담가로서 불자에게 다가서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다.

〈Japan Times〉 지에 따르면, 미우라 스님에게는 비하라 21을 창립할 당시 사찰보다는 사회복지시설이야말로 스님이 있을 곳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생로병사가 우리의 삶이라고 보면, 사회복지야 말로 가장 불교적인 게 아니냐’는 믿음 때문이다.

“비하라는 산스크리트어로 ‘사원’을 뜻한다”고 말한 미우라 스님은 “비하라 21은 지역 주민의 삶 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곳”이라며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에게나 개방하는 비하르 21에서 대화를 나누고 교감하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apan Times〉 지는 “출간 전 글로벌 건설회사의 ‘이사’를 역임했을 정도로 ‘출세가도’를 달리고 미우라 스님이 출가를 결심한 것도 이채롭지만, 사찰 아닌 사회복지시설에서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 동시대 일본 불교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국제 소림무술축제 열려 제10회 국제 소림무술축제가 지난 10월 19일 중국 허난(河南)성 덩펑(登封)시 쑹산(嵩山)에서 개최됐다. 이날 우수 소림사 제자 7만여 명이 쑹산 소림사로 통하는 15㎞의 길 양측에서 소림 72종 절기 중 철비공(鐵臂功), 비첨주벽(飛走壁), 금종조(金鐘), 철포삼(鐵布衫), 철사장(鐵砂掌), 주사장(朱砂掌), 응조공(鷹爪功) 등을 선보이며 무술축제 개막을 축하했다. 이나은 기자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CD

위없는 법열(法悅)
환희심 가득 찬 향기로운 연꽃으로 거듭 피어나길
맑은 향 사르오며 두 손 모읍니다.

詩人 김하리 합장

현불샵 리뉴얼 기념 할인 행사
가격 ~~10만원~~ ⇨ 9만원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 CD

CD01-제1. 서품(39:25)
CD02-제2. 방편품(46:51)
CD03-제3. 비유품(54:48)
CD04-제4. 신해품(30:24)
제5. 약초유품(16:08)
제6. 수기품(17:13)
CD05-제7. 화성유품(51:41)
제8. 오색제자수기품(21:11)
CD06-제9. 수학무학인기품(11:22)
제10. 법사품(18:39)
제11. 견보탑품(22:19)
제12. 제바달다품(15:54)
CD07-제13. 권지품(10:07)
제14. 안락행품(27:27)
제15. 종지용출품(21:13)
CD08-제16. 여래수량품(21:15)
제17. 분별공덕품(23:31)
제18. 수희공덕품(13:23)
CD09-제19. 법사공덕품(24:17)
제20. 상불경보살품(13:15)
제21. 여래신력품(08:59)
제22. 촉루품(04:36)
제23. 약왕보살본사품(23:10)
CD10-제24. 묘음보살품(16:12)
제25. 관세음보살보문품(19:26)
제26. 다라니품(10:07)
제27. 묘장엄왕본사품(14:46)
제28. 보현보살권발품(14:07)

구입문의
02)2004-8216
현대불교 현불샵